

강남 하이퍼블릭, 이름만으로도 '시끌벅적한 밤'을 떠올리게 한다. 회사 회식, 프로젝트 마무리 뒤풀이, 해외 파트너 환대 같은 이유로 단체 예약을 알아보는 팀이 많다. 문제는 각자의 기대치가 다르고, 자리를 잘못 잡으면 예산은 새고 분위기는 빠격거린다는 점이다. 입장마다 운영 철학, 좌석 구조, 가격 책정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처음 가는 사람은 기준점이 없다. 이 글은 단체 모임을 여러 번 진행하며 겪은 시행착오를 토대로, 기본을 단단히 잡는 방법을 정리했다. 목적이 뚜렷하면 선택이 쉬워지고, 준비가 갖춰지면 현장에서 여유가 생긴다.

## 강남 하이퍼블릭의 '장면' 이해하기

강남의 하이퍼블릭은 음악이 빠르고 볼륨이 크며, 조명이 분절적으로 바뀌는 구성이 많다. 테이블 간 간격이 촘촘한 편이라 에너지와 밀도가 높다. 술과 안주가 중심이지만, 흥을 돋우는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된다. 어떤 곳은 무대가 있고, 어떤 곳은 DJ 부스와 중앙 플로어가 돋보인다. 단체 모임이라면 이 밀도와 소음을 어떻게 이용하거나 피할지가 핵심이다. 팀이 대화를 원한다면 스피커에서 먼 구역과 파티션이 있는 반프라이빗 테이블이 낫다. 반대로 분출이 필요한 회식이라면 플로어 근처에서 음악의 파도를 맞는 편이 재미있다.

주중과 주말의 결이 다르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비교적 여유로워 좌석 선택권이 넓고, 주말은 회전율이 빨라 예약이 많다. 단체라면 금요일, 토요일 피크 타임에는 일찍 자리를 잡아야 한다. 손님 구성이 섞인 혼성 팀이 늘었고, 외국인 동료나 파트너를 초대하는 경우도 잦다. 입장은 사진, 촬영, 흡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한데, 외국 손님이 섞인 팀은 사전에 안내를 두 번은 해야 낭패가 없다.

## 모임의 목적을 먼저 정리하기

단체 모임을 이끄는 사람의 첫 과제는 목적 정리다. 의외로 이 단계에서 갈린다. 서로 기대하는 장면이 다르면 주문과 좌석, 음악 볼륨에 대한 판단도 달라진다.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며 댄스 플로어까지 활용해 격하게 놀고 싶다면, 테이블 최소 주문을 높여도 플로어 근접 좌석이 이득이다. 반대로, 신입 환영 자리라면 대화가 흐를 구조를 택해야 마음을 열 수 있다. 업무 협력사를 모시는 자리라면 세팅과 동선의 매끄러움이 중요하고, 큰 소리로 건배를 반복하는 풍경은 피하는 편이 낫다.

목적은 정리할 때 인원 구성도 같이 보자. 8명 미만은 한 테이블로 응집감을 살릴 수 있지만, 10명을 넘기면 시야와 대화가 갈라진다. 이 경우 테이블 2개를 나란히 붙이는 옵션을 생각하고, 핵심 인물들이 어디에 앉을지 구도를 스케치하자.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이가 3명 이상이면 병 주문 전략을 바꿔야 하고, 채식 위주의 손님이 있다면 안주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 좌석 선택의 디테일

하나의 공간이라도 구역마다 체감이 완전히 다르다. 강남 하이퍼블릭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좌석 구성이 공존한다. 오픈 테이블, 반프라이빗 부스, 완전 분리 룸. 상호 간 유사한 명칭을 쓰지만 구조는 업장마다 다르다. 포인트는 세 가지, 소음, 시야, 동선이다.

소음은 스피커 배열과 천장 높이에 크게 좌우된다. DJ 부스나 메인 스피커에서 멀수록 대화가 쉽다. 다만 음악의 박자감이 약해져 같은 업장이라도 체감 흥도가 떨어질 수 있다. 시야는 팀 결속에 직결된다. 둥근 부스는 안쪽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깥과 단절되고, 일자형 테이블은 가장자리 손님이 소외되기 쉽다. 동선은 주문과 화장실, 흡연실 접근성의 문제다. 플로어 지나야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좌석은 동선이 꼬이면서 팀의 흐름을 자주 끊는다.

좌석을 고를 때 스태프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해 가면 확실히 다르다. 금요일 9시 이후 음악이 얼마나 커지는지, 2시간 뒤에도 옆 테이블이 바뀌지 않는지, 테이블 두 개를 붙일 경우 파티션을 임시로 걷을 수 있는지. 가능하면 사진만 보지 말고, 예약 전에 5분이라도 들러 실제 소음을 귀로 확인하자. 팀 성향과 목적을 떠올리며, 대화를 얼마나 포기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는 편이 현실적이다.

## 예약과 타이밍, 실패하지 않는 기본기

피크 타임의 단체 예약은 타이밍과 디테일 싸움이다. 금, 토 8시에서 자정 사이라면 최소 3일, 인기 있는 날은 5일 전에 움직인다. 평일은 전날 문의에도 좌석이 나올 때가 있지만, 인원이 12명을 넘으면 역시 일찍 잡는 편이 안전하다. 업장 대부분은 테이블 홀드를 위해 보증금이나 카드 번호를 요구한다. 보증금은 보통 10만에서 50만 사이로, 노쇼나 당일 취소 시 일부 차감될 수 있다. 홀드 시간은 15분에서 30분 범위가 일반적이며, 지연 시 테이블이 풀릴 수 있으니 핵심 인원은 먼저 도착해 자리를 지키는 편이 낫다.

주차는 생각보다 큰 문제다. 강남 골목은 주말 저녁이면 만차가 기본이다.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합승 택시를 잡는 경우를 대비한 하차 지점을 공유하고, 운전자는 가장 먼저 들어오게 만든다. 엘리베이터 병목이 생기는 건물도 많다. 입장 시간을 한 번에 몰지 말고, 두 타임으로 나누면 스태프도 안정적으로 응대할 수 있다.

다음은 단체 예약 전 확인하면 좋은 핵심 체크리스트다.

- 목적, 인원, 예상 체류 시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업장에 공유한다
- 좌석 구역 사진과 층별 배치도, 스피커 위치를 받아서 팀과 미리 합의한다
- 최소 주문, 보틀 반입 여부, 세금과 봉사료 포함 여부를 수치로 확인한다
- 취소, 변동 정책과 홀드 타임, 보증금 환불 조건을 메시지로 남겨둔다
- 촬영 가능 구역, 흡연실 위치, 외부 음식 반입 정책을 사전에 숙지한다

## 예산 설계, 팀별 실전 구간

가격은 업장마다 편차가 크다. 그래도 단체 기준으로 잡히는 구간은 있다. 평일 저녁 단체의 1인 총비용은 대개 7만에서 15만 사이에 형성된다. 주말 프라임 타임이면 1인 12만에서 25만을 각오해야 한다. 한 팀당 최소 주문이 테이블별로 묶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도 1인 비용이 선형으로 떨어지진 않는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8명 팀, 평일, 반프라이빗 부스. 보틀 2개, 탄산과 믹서, 과일과 튀김 안주 3종, 물과 얼음 포함. 병당 20만에서 35만을 잡으면 총 40만에서 70만. 안주와 물, 믹서로 20만에서 35만. 합계 60만에서 105만. 여기에 세금과 봉사료가 각각 10퍼센트씩 별도일 수 있다. 그러면 총액은 72만에서 126만 정도가 된다. 1인 9만에서 15만의 감각이 생긴다.

12명 팀, 주말, 플로어 근접. 보틀 3개, 스파클링 1병, 안주 4종, 과일 플래터, 믹서. 병당 단가가 올라가 25만에서 45만이면 75만에서 135만. 안주와 플래터가 35만에서 60만. 합계 110만에서 195만. 세금과 봉사료 포함 시 132만에서 234만. 1인 11만에서 19만 정도다. 여기에 생일 케이크 커팅이나 스페셜 주문이 들어가면 추가 10만에서 30만이 얹힌다.

업장에 따라 보틀 보관을 허용한다. 다음 방문에 사용할 수 있게 남은 술을 맡길 수 있다면, 첫날 단가를 높여도 심리적 부담이 줄어든다. 반대로 잔으로만 주문하면 최소 주문을 채우느라 계산이 어색해진다. 단체라면 병 주문이 계산도, 서비스도 수월한 편이다.

예산을 빠르게 가능하는 가장 간단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팀의 술 취향을 묻고, 보틀 단가 구간을 정한다
- 인원수 기준으로 병 수를 정한 뒤, 안주와 믹서를 1인 2만에서 3만으로 대략 잡는다
- 세금과 봉사료가 포함인지 확인하고, 포함이 아니라면 20퍼센트를 추가한다
- 최소 주문이 있다면 역으로 병 수를 조정해 충족시킨다
- 2차가 예정돼 있다면 1차 체류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고, 주문을 80퍼센트만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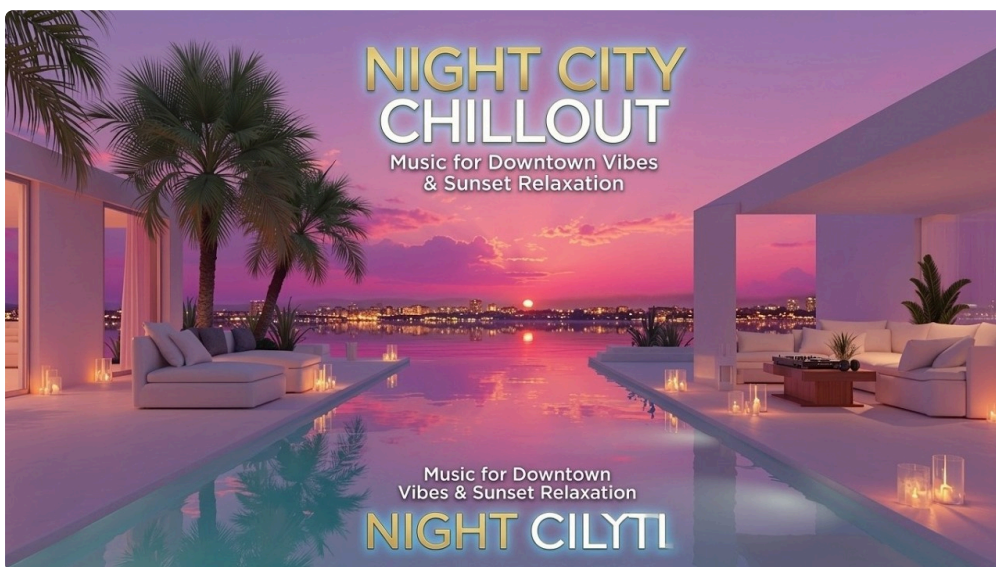
## 메뉴 전략, 취향과 리듬의 균형

보틀은 위스키와 보드카, 테킬라가 주류다. 위스키는 얼음과 물, 탄산으로 폭을 넓히기 쉬워 혼성 팀에 안정적이다. 보드카는 칵테일 베이스로 다루기 좋고, 테킬라는 분위기 전환의 기동력이 크다. 소주 주문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하이퍼블릭의 기본 세팅과 리듬에는 보틀이 맞물리는 경우가 더 많다. 팀 안에 술을 거의 못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알코올 칵테일을 몇 잔 섞어 주문하자. 시그니처 논알콜 메뉴가 깔끔한 곳은 대체로 전체 메뉴밸런스가 좋았다.

안주는 늘 남기기 쉽다. 첫 주문에 과일 플래터와 튀김, 간단한 탄수화물류를 **선릉 하이퍼블릭** 섞어 놓고, 40분쯤 지나 추가 주문을 걸어라. 사람들의 손이 어디로 몰리는지 관찰하면 다음번 주문이 정교해진다. 매운 음식은 술을 과하게 부르게 만들고, 모양만 번지르르한 접시는 절반 이상이 남는다. 사진을 찍으며 머뭇거리는 시간보다, 바로 손이 가는 조합이 실용적이다.

## 매너의 기준, 선을 정하는 리더십

단체 모임의 품격은 리더의 한마디에서 갈린다. 음악과 조명이 뜨거워질수록, 팀 안에서 말과 행동의 기준도 흐려진다. 입장 전에 간단한 규칙을 공유하자. 촬영 시 다른 팀이나 스태프가 화면에 잡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술을 권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구한다, 스태프에게 반말을 하지 않는다. 간단하지만 실행되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신체 접촉은 오해를 부른다. 하이파이브와 어깨 토닥임도 상대가 불편해 보이면 바로 멈춘다. 팀 안에서 누군가 과음을 시작하면 리더는 대화의 흐름을 바꿔주고, 물과 가벼운 안주를 밀어주며 템포를 낮춘다. 술게임이 필요하면 시간과 강도를 정하고, 게임 종료 신호를 명확히 준다. 분위기를 띄우리라며 소리를 과도하게 지르면 옆 테이블과 마찰이 생긴다. 노래를 따라부르는 정도는 이해되지만, 단체 떼창은 피하자.

## 혼성 팀과 외국인 손님을 배려하는 방법

혼성 팀은 좌석 배치에서 먼저 배려가 드러난다. 특정 성별이나 직급이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진짜로 섞자. 처음 30분간은 대화를 엮는 진행이 중요하다. 모두가 한 번씩 말할 기회를 갖게 가벼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술잔보다 물잔을 가까이 둔다. 외국인 손님이 있다면 업장의 규정을 영어로 미리 공유한다. 촬영, 흡연, 결제 방식, 팀 문화 유무를 사전에 설명하면 현장에서 에누리 없는 [압구정 하이퍼블릭](#) 웃음을 만들 수 있다.

메뉴판의 한글 표기만 있을 때를 대비해 주문 담당은 두 언어를 번갈아 써서 설명한다. 테킬라 샷 같은 빠른 술은 권하지 말고, 천천히 마실 수 있는 하이볼과 스프리츠류를 전면에 둔다. 매운 안주는 수준을 낮추고, 매콤함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소스만 따로 둔다.

## 책임 있는 음주, 끝까지 안전하게

모임을 잘 끝내는 능력은 시작보다 어렵다. 강남의 밤은 교통이 예측 불가라 귀가 동선까지 신경 써야 한다. 대리운전 콜과 택시 앱의 픽업 지점을 하나로 정해 단체 채팅방 상단에 고정한다. 마지막 주문은 마감 30분 전에 끊어 체온을 낮출 시간을 갖는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카페인 함유 음료는 밤 늦게 피한다. 숙소가 필요한 외지인은 미리 도보 10분 거리 이내로 잡자. 이동 중 실수를 줄이고, [역삼 하이퍼블릭](#) 짐 분실 가능성이 혹 떨어진다.

과음자가 생기면 2인 1조로 동행을 붙이고, 화장실이나 흡연실에 혼자 보내지 않는다. 업장과 상의해 조용한 구석에서 컨디션을 회복할 시간을 얻는 게 최선이다.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면 망설이지 말고 119를 호출한다. 당황할수록 시간은 늘어난다. 리더의 차분함이 팀 전체의 불안을 누른다.

## 결제와 정산, 투명함이 믿음을 만든다

단체 모임의 회계는 미리 규칙을 합의하면 깔끔하다. 법인카드를 쓸지, 개인 선결제 후 N분의 1을 할지, 1차와 2차를 나눌지. 예상 금액과 결제 방식을 사전에 공유하면 이후 메시지 줄다리기가 없다. 강남 하이퍼블릭 상당수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다. 계산대에서 정신없기 전에, 입장 시점에 처리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물어두자. 카드 단말기 수수료나 결제 한도 문제로 두 번 굶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결제 담당 카드를 두 장 이상 준비하면 막판 변수가 줄어든다.

팀 문화는 업장별로 다르다. 한국에선 의무가 아니지만, 유난히 신경 써 준 스태프가 있었다면 팀 대표가 조용히 감사의 표시를 건네는 장면은 여운이 좋다. 다만, 계산대는 복잡한 시간대가 있으니 인파가 몰릴 땐 길게 붙들지 말자. 정산 메시지는 다음 날 오전, 합산 내역 캡처와 함께 단문으로 끝내는 편이 팀 피로도를 낮춘다.

## 문제 상황 대처, 에스컬레이션의 기술

취소나 인원 변동은 피할 수 없다. 당일 변동에 대비해 홀드 타임과 취소 수수료를 문서로 받아 두자. 보증금 일부가 차감되는 조건이 일반적이다. 인원이 줄면 테이블을 축소할 수 있는지, 축소가 어렵다면 최소 주문을 낮출 여지가 있는지 사전에 협의한다. 현장에서 소음이나 좌석 문제가 생기면, 불만을 테이블에서 키우지 말고 즉시 카운터와 상의하자. 스태프는 보통 대안을 가지고 있다. 조명의 밝기나 음악 볼륨 조정, 테이블 레이아웃 재정렬 같은 실무 조치가 가능한지 물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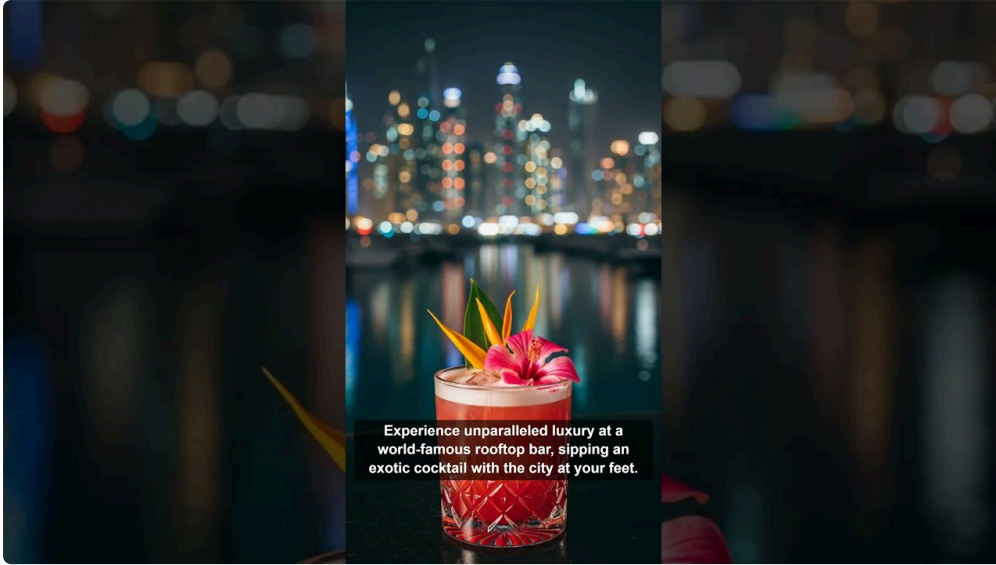
분실물은 대부분 계산대나 보관함에 모인다. 영수증 사진이나 예약자 이름을 근거로 남겨두면 회수가 훨씬 빠르다. 옷과 우산, 보조배터리, 카드지갑이 자주 사라진다. 테이블을 떠날 때마다 주머니를 한번 두드리는 습관을 팀에 전파하면 체감 분실률이 크게 줄었다.

## 2차와 마무리, 리듬을 설계하라

단체가 모두 같은 속도로 달린진 않는다. 1차에서 에너지가 남은 사람과 조용히 정리하고 싶은 사람이 갈린다. 이때 리더는 2차를 하나만 정하지 말고, 두 갈래를 열어둔다. 소음이 낮은 와인바나 라운지, 간단히 요기를 할 수 있는

식당, 건기 좋은 코스를 지도에 표시한다. 결정을 미루지 말고, 1차의 마지막 주문이 나왔을 때 2차 선택지를 공지한다. 인원을 갈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고, 각 팀의 책임자를 한 명씩 세우면 사고가 줄어든다.

마지막 인사도 리듬이다. 단체 채팅방에 사진과 함께 고마움을 전하고, 다음 날 오전 숙취 케어 팁과 분실물 안내를 올리자. 짧고 분명한 메시지가 관계의 결을 정돈한다. 즐거운 밤을 잘 정리하는 팀이 다음 모임도 **강남 하이퍼블릭** 잘 만든다.



## 실제 사례에서 배운 것들

프로젝트 성공 뒤 14명이 모인 어느 금요일, 플로어에서 두 테이블을 붙여 받았다. 초반 40분은 분위기가 더땀다. 음악이 커서 대화가 잘 안 들렸고, 뒷줄은 고개만 고덕였다. 스태프에게 부탁해 테이블을 살짝 엇각으로 틀자 시야가 열렸다. 동시에, 튀김을 한 접시 더하고 테킬라 샷 대신 하이볼로 무게를 낮췄다. 20분 뒤 자연스럽게 조가 섞이기 시작했고, 건배는 줄고 웃음은 늘었다. 첫 주문에 씹씹하게 들어갔던 과일 플래터는 절반이 남았다. 다음번엔 플래터를 하나로 줄이고, 대신 탄수화물 비중을 올렸다. 같은 인원, 같은 시간대였지만 체감 비용이 15퍼센트가량 내려갔다. 디테일의 힘이다.

반대로, 외국인 손님 3명이 포함된 9인 팀에서 촬영 규정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탓에 옆 테이블과 작은 실랑이가 있었다. 음악이 컸고, 손짓으로 사과를 전했지만 오해가 풀리기까지 10분이 걸렸다. 이후부터는 촬영 담당을 한 명으로 묶고, 화면에 타인이 비치지 않도록 배경을 벽으로 고정했다. 가벼운 실수도 규칙 하나로 사라진다.

## 강남 하이퍼블릭을 단체로 '잘' 즐기는 법

핵심은 세 가지다. 목적을 명확히 하고, 좌석을 목적에 맞추며,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이 세 가지를 단단히 잡으면 매너와 안전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공간은 강렬하고, 팀의 호흡은 섬세하다. 이 둘을 잇는 사람이 리더다. 미리 지도를 그린 리더는 현장에서 춤을 춘다. 준비는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또렷하다.

강남의 밤은 누구에게나 똑같지 않다. 어떤 팀은 음악 속에서 한 번에 불이 붙고, 어떤 팀은 조용히 웃으며 마음을 푼다. 좌석은 무대가 되고, 주문은 대본이 된다. 분위기는 우리가 만든다. 기본을 갖추면, 단체 모임은 '그날만 좋았던 자리'가 아니라, 다음 협업과 신뢰를 여는 계단이 된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차이는 더 선명해진다. 준비된 팀이 기억을 가져간다.